

## 2015년 2월 21일(주일) 야고보서(13)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라”(약 3:13-18)

### <도입>

살아가면서 어렵고 막막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닥칩니다. 그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 좌절할 때 돕고 싶은데,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위로를 줄 수 없을 때 무기력을 느끼기도 합니다.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평강과 위로를 이루게 하는 지혜가 없습니다.

### [1] 야고보는 왜 지혜를 강조하는가?

약 2-3 장을 통해서 말을 포함한 모든 행함은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서 중요성을 갖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 행함은 구체적인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 행함과 말로서 아무 유익도 못 끼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만 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13 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믿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것이 행함으로 믿음 있음을 증명하는 것과 더불어 그 행함은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수준으로 요구 받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거짓 지혜와 참 지혜를 언급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 자신이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주장하는 교우들이 있었는데 야고보는 이들의 지혜를 참 지혜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 [2] 지혜는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참 지혜란** 어떤 속성과 모양을 가지는가? 그것은 온유라고 말합니다. 온유는 자기가 쓸 수 있는 힘과 권리를 공동체 위해서 제어할 수 있는 힘(말씀 잔치)입니다. 참 지혜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그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권리를 제어하고 양보하는 모습(온유)으로 나타납니다.

17 절에서 지혜의 모습을 열거합니다.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반면, **거짓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속성과 모양을 가지고 있을까요?

→ 14 절.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기반이 되어서 자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시기’라는 말은 열심(젤로스)이라는 뜻입니다. 두 종류의 열심이 있습니다. 선한 동기로 선한 목적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것과 죄와 악의 동기로 행하는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될 때는 좋은 열심(젤로스)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우들은 자기 자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을 냈습니다. ‘시기’ 앞에 첨가된 ‘**독한**’이라는 말은 사람을 쓰리게 하는 잔인성이 담긴 것을 뜻합니다. 무엇에 열심을 내느냐 하면, 계속 흠잡고 비판하는 것에 열심을 내고 좋은 말이 지나가는 것을 놔두지 않고 꼭 흠 잡는 비난조의 말을 덧붙입니다. 그리고는 ‘다툼’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툼은 이득을 챙기는 비열한 본성과 이기주의를 뜻합니다.

**15 절.** 거짓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 한글 성경 모든 번역에서 이 구절을 악마적, 마귀의 것, 악령에게 속한 것이라고 번역합니다.

마귀는 결코 자기 모습을 그렇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항상 숨어서 일합니다. 그리고 항상 자신을 광명한 천사같이 속이면서 드러내죠. 왜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를 드러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최고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고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추구하는 고수의 전략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 없다고 확신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땅의 지혜, 육신적 지혜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게 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혜까지 필요하랴!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 지혜의 결말** 16 절에서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지혜로 빛어진 창조 세계와 하나됨(화목)을 이루신 구원의 질서를 깨어버려서 더 이상 선한 것이 지어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거짓 지혜가 나타나면 영리함 가운데 일도 잘 대처하고, 당장에는 관계도 좋은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지혜가 더해지는 행함과 말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합니다.

### [3] 지혜는 어떻게 얻는가?

아브라함과 라합의 이야기를 봅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충실, 변치 않으심)하십니다. 은혜로 찾아오셔서 당신의 뜻을 따라 살려는 아들과 딸들에게 하늘에 속한 평화와 위로와 지혜로 상을 주시기를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처음에는 주님 뜻을 따르는 것이 너무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져서 거부하기도 하지만 끝내 주님의 신실하심에 감복되면 주님께 대한 경외감(사랑과 끌림과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라합(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하나님께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님께 대한 나의 경외심이 만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위로부터의 지혜가 부여됩니다.

**잠 9:10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과 만남으로 부여지는 지혜가 총만하시길 빕니다.

### [나눔의 질문]

1. 당신은 참 지혜와 거짓 지혜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각각의 예가 생각나면 나누어 봅시다.
2. 참 지혜는 왜 필요합니까? 이것은 선택 사항입니까, 아니면 성도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내게 참 지혜가 필요한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3. 참 지혜를 어떻게 얻습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생각해 봅시다. 지혜가 드러난 삶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